박, "중산층 재건" 수도권 공략

서울 구로·인천 거북 시장 돌며 반값등록금·사교육비 해결 약속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9일 중산층 결집을 위한 민생공약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서울 서부권→경기 김포→인천의 15개 지역을 도는 강행군으로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다.

박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내 어린이집에서 보육실태를 살폈다. 이어 서울 구로시장과 인천 거북시장 등 시장만 5곳을 돌았다.

그간 정책 정책발표를 통해 고공전으로 이뤄진 수도권 선거전이 현장 유세에서 공약을 일일이 유권자에게 설명하는 백병전으로 바뀌었다.

그는 경기도 김포 사우동 유세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다. 교과서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선행학습 평가를 철저히 금지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대학등록금도 반으로 덜겠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였던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사퇴 후 20%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동층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수도권 혼전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실시한 성인 935명 대상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2%포인트)에서 박 후보는 서울에서 42%의 지지율로 48%를 얻은 문 후보에 뒤졌으나 인천·경기에서는 45%로 문 후보(42%)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표심도 박 후보 42%, 문 후보 47%로 팽팽히 양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공격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념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도록 하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간경기장과 검단사거리, 동인천역 광장, 부평역 광장,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벌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장 상인들과… 29일 수도권 공략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 골목시장 호떡가게에서 호떡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문, '남해안 벨트' 횡단 유세전

여수·순천·사천·진주 등 11곳 전통적 지지층 표밭갈이 총력

배추값 얼마죠? 29일 전남을 방문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여수 서시장에서 김장철을 앞두고 상인들과 배추값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9일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과 사천, 진주, 김해 등 경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를 순회하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PK) 표심 공략에도 박차를 가했다. 하루 만에 국토 남단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횡단하며 11곳에서 유세를 펼치는 강행군을 펼치며 세 확장을 시도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수를 시작으로 텃밭인 호남 지역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다.

26일 광주 방문 이후 나흘 만의 호남 재방문으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이후 늘어난 부동층과 동요하는 지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는 안 전 후보의 처가가 있어 그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는 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부동층 흡수 경쟁에서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여수 서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여수를 해양관광 특구로 만들고 엑스포 시설을 잘 활용해 여수시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수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막아놓고서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느냐"며 박 후보의 '짝퉁 경제민주화'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문 후보는 이어진 순천 연향동 집중유세에서 언론에 폭로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검찰개혁은 사실은 검찰과 짜고 치는 위장개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PK(부산·경남) 지역으로 이동해 사천·진주·함안·김해 등에서 릴레이 유세를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화갑, 박근혜 지지 나서나

내달초 선언 가능성…민주 "야권분열 우려 김대중 정신에도 안맞아"

'리틀 DJ'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내달 3~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9일 한화갑 전 대표 핵심 측근은 "그동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물론 황우여 대표와 서청원 전 대표 등이 한 전 대표를 만나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근혜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는 시점과 맞물려 한 전 대표의 지지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박 후보가 한 전 대표가 요청한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챙기고 한 전 대표가 박 후보를 지지하는 형식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에 대한) 최종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형식은 아니다"며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한 전 대표의 지지 선언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전 대표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야권의 원로이자 '리틀 DJ'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분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은 김대중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캠프 내달 3일 해단식

안 전 후보 직접 참여…선거지원 등 입장 밝힐듯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의 해단식이 다음달 3일 오후 3시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안 전 후보도 참석한다.

캠프 유민영 대변인은 29일 "캠프 해단식을 12월3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후보가 참석해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후보 사퇴 선언 이후 지방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한 안 전 후보는 캠프 해단식에서 그동안 동고동락한 캠프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거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 지원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단식에는 캠프 구성원들과 자원봉사자, 정책포럼 및 지역포럼 관계자 등 200~300명이 참석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촬영한 기념 동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해단식은 애초 27일 예정돼 있었지만 지지자 투신소동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새누리 대통합위 지역본부 활동

중앙당 선대위 산하 대통합위원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현장)가 29일 간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지지활동에 들어갔다.

한광옥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현장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의 분수령에 설 때마다 온몸을 던져 민족의 앞길을 밝혀왔던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이제 대통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통해 동서화합의 새 정치사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해야"

지방분권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와 광주YMCA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9일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국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 등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이 지역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지역발전의 핵심인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복지국가 실현, 경제민주화 추진, 양극화 해소,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서 전국 대학생 대선 토론

영·호남과 수도권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다가온 대선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29일 조선대 정치외교학부에 따르면 계명대학교 미국학과,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2012년 한국 대통령 선거와 지역별 유권자의 선택 토론회'를 다음달 1일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공동세미나실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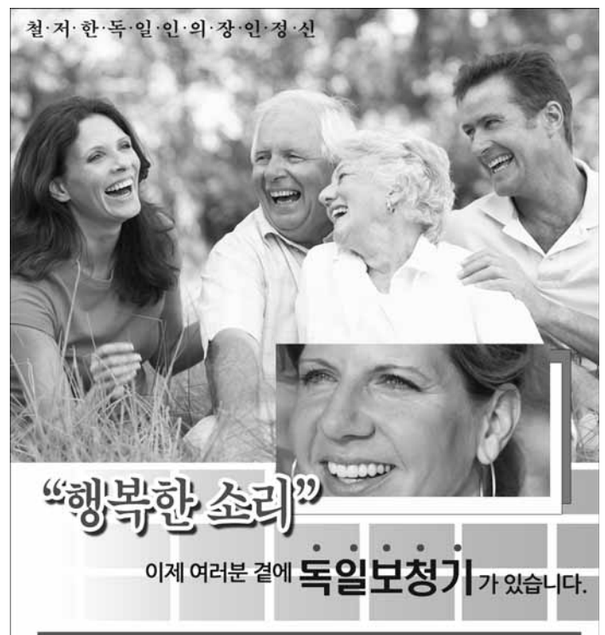
토론회에서는 서울·대구·경북·광주 지역의 유권자 여론조사에 기초해 각 지역의 민심에 관한 대학생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 학생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대선을 심층 조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출금리:연5.5%~ 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삼성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더블유저축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 1년이자비용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예 시 :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 입니다.
부채 리모델링 전 연간 이자비용이 3,600만원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 연간 이자비용이 1,445만원으로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본 실제 사례입니다 부채리모델링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운명철학
人間의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신음하는 노후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검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 사 柳無山居士

철·저·한·독·일·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음향 이득효과가 큽니다.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